

‘김환기, 고향의 봄’ 시민들을 찾아갑니다

광주·전남 미술관·갤러리, 올해 다양한 전시 마련

미술 마니아들에게 한해 계획을 세우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연중 전시계획이다. 광주·전남지역 주요 미술관과 갤러리는 2013년을 시작하면서 어떤 전시로 시민들을 찾아갈 준비를 하고 있을까?

우제길미술관은 올해 국제관화워크숍 10주년을 기념해 특별전 ‘10가지의 색’(7월19일~9월25일)을 준비중이다. 전시기간 중 지난 10년 동안 국제관화워크숍에 참여했던 해외 작가들 중 5명을 초청해 10일 동안 ‘리얼리즘 관화의 만남’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지난 2004년부터 시작한 국제관화워크숍에는 중국의 정세량, 프랑스 크리스티안 잠머만, 일본 고바야시 케이세이, 터키 술레이 사임 탁잔 등의 관화 작가들이 다녀갔다. 설치미술가 3명의 각기 다른 매력을 들여다보는 초대전 ‘그림 위에 서서’(2월15일~3월20일)와 봄을 맞아 현대미술작가 5명의 소신과 해학을 들여다보는 기획전 ‘입춘 대작 유유 소작’(4월5일~27일)도 준비중에 있다.

무등현대미술관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전시는 염색화가 박정우의 ‘자연으로 일상을 물들이다’(3월15일~4월20일) 기획전이다.

다. 박씨는 실크에 파라핀을 물감 삼아서 그림을 그린 뒤 숨을 땀, 손바느질로 옷, 스카프, 넥타이, 가방 등을 만든다. 다소 생소하지만 입체감과 함께 신비한 느낌을 자아낸다. 이 밖에도 오는 9월 해외 작가들을 초청 ‘국제환경미술전-에코지움, Jump into the Unknown’ 전 개최를 추진중이다.

의재미술관은 5~6월 의재 허백련과 서화 일체의 문인화 정신을 보여준 서예가, 남종화가들의 화제(畫題·그림에 써넣은 시와 글)를 모아 ‘마음을 비추는 창-畫題’전을 진행할 계획이다. 동양정신의 가치와 여유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오는 11월에는 ‘2013년 한·중 수목 교류전’이 예정돼 있다. 중국 시립관산월미술관과 교류전시 10화제를 맞아 서구 미술에 익숙해져 있는 현대인들에게 동양화가의 지니고 있는 미의 세계를 엿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생각이다.

은암미술관은 한국 근대 회화의 선구자 수화(樹話) 김환기(1913~1974년)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 ‘김환기, 고향의 봄’(2월22일~3월16일)을 전시할 예정이다. 서울 한가미술관과 함께 신안 출신인 수화 김환

우제길미술관 ‘10가지의 색’전

무등현대미술관, 박정우 기획전

의재미술관 ‘마음을 비추는 창’전

금호갤러리 ‘안 사우텍’전

:

기 화백의 작품세계를 살펴보고 생전 활동 사진과 관련 영상, 텍스트 등을 전시하게 된다.

금호갤러리는 체코의 문화예술 3대 거장으로 불리는 안 사우텍(Jan Saudek)의 오리지널 빈티지 프린트 150여점을 선보이는 ‘안 사우텍 사진전’(19일~2월24일)을 준비중이다. 로만티시즘과 에로티시즘의 사이를 오가며 팽팽한 비탄과 사랑을 동시에 받고 있는 안 사우텍의 예술 사진들을 감상할 수 있다. 만40세 이하의 젊은 작가들을 선정해 개인전 초대와 포스터 제작 등을 지원하는 ‘영아티스트전’도 모두 14차례에 걸쳐 진행할 예정이다.



안 사우텍 작
‘The LIFE’



김환기 작
‘달밤의 화실’



나카이 가즈마사 작
‘SAVE’

광주신세계갤러리는 국내외 미술계의 흐름을 읽어주는 기획전 ‘디디에르’(6월18일~7월7일), ‘에디션페어’(12월)와 환경의 날 기획 ‘더는 맞볼 수 없었지 모릅니다’(6월), 남도 문화의 맥을 되짚어보고 그 원류를 찾아가는 시리즈전 ‘남도문화의 원류를 찾아서’(8월23일~9월24일)을 준비중이다. 광주롯데갤러리도 신춘기획으로 ‘생명의 변주곡-나카이 가즈마사’(3월21일~4

월10일)를 통해 일본의 대표적인 그래픽 디자이너이자 관화가인 나카이 가즈마사의 작품 100점을 광주에 소개할 예정이다. 미디어아티스트 ‘박상화 초대전’(3월6일~19일)과 서양화가 ‘박수만 초대전’(4월12일~25일)도 계획중이다.

고흥 남포미술관은 오는 8~9월 사이 해

의 작가들을 초청해 나로우주센터와 미술, 과학을 연계한 ‘은하철도의 밤’과 ‘국제 조각 심포지엄’(10월)을 개최할 예정이며, 강진 아트홀도 강진, 해남, 장흥과 서울지역의 공공미술 작가들을 초청해 농촌의 현실을 살펴보는 ‘리얼전라도’(4월)를 준비중이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스피드 ‘슬픈약속’ 보셨나요

80년 5월 광주 배경 유비... 박보영·지창욱 열연

80년 5월 광주 이야기를 담은 뮤직비디오가 연일 인터넷을 달구고 있다.

신인그룹 스피드의 ‘슬픈약속’ 뮤직비디오는 13분 가량의 분량으로 1980년대 애타웠던 광주를 배경으로 젊은이들의 엇갈린 우정과 사랑을 그렸다. 스피드 소속사 코어콘텐츠미디어가 제작비 7억 5000만원을 투입, 배우 박보영, 지창욱, 하석진 등이 열연했다. 특히 여배우 박보영이 노개런티로 열연한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끌었다.

17일 정식대비에 앞서 지난 7일 음원이 공개된 ‘슬픈약속’ 뮤직비디오는 당일 음원사이트 ‘멜론’에서 차트 10위권에 진입했으며, 하루 만에 유튜브 조회수가 20만건을 넘어서기도 했다.

‘슬픈 약속’은 5·18 광주민주화

항쟁 당시 박치는대로 학생들을 잡아들이던 군에 여자친구들이 끌려가자, 이들을 지키기 위해 두 남학생이 목숨을 바친다는 내용이다.

뮤직비디오로서는 이례적인 제작비와 스태프가 투입된 만큼 탄탄한 영상미가 시선을 사로잡는다. 5·18을 다룬 ‘화려한 휴가’ ‘26년’을 능가하는 영상미와 스토리는 한 편의 영화로 봐도 손색없을 정도다. 실제 탱크가 등장하고 700여명의 엑스트라가 군인, 시위대로 나오는 등 1980년 광주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그리기 위해 노력한 모습이 엿보인다.

뮤직비디오 마지막에는 자막을 통해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많은 분들에게 이 뮤직비디오를 바친다’는 글도 남겼다.

스피드 소속사 측은 “‘슬픈약속’



뮤직비디오를 온 국민이 한번쯤 보셨으면 한다”며 “1980년대 광주 아픔을 함께 나누고 싶다”고 설명했다.

오는 15일 공개될 예정인 2부는 12분 정도의 분량으로 1부 내용에 이어 5·18 광주 민주화 항쟁 당시 광주 도청에서의 긴박했던 상황을 현실적으로 다룬 것으로 전해져 ‘슬픈약속’의 열기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시문학과의 생애·작품세계 조명

학술총서 첫번째 ‘시문학과의 표층과 심층’ 발간

한국 시문학의 서막을 열었던 시문학과의 문학사적 의의와 생애 등을 조망한 책이 나왔다.

지난해 강진에 문을 연 시문학가기념관이 폐년 이번 저서는 한국 현대 시문학 발전의 기록제가 되었던 시문학과의 다층적 시각에서 접근, 그들의 생애와 다양한 작품세계를 다루고 있다.

학예연구실장 김선기 씨는 “이번 책은 시문학을 작·간접적으로 조명한 학술적 논문으로서 뿐만 아니라 위당 정인보의 친필 정양관(한국국립신문학회 명예교수) 씨, 박용철의 처남 임영무(상명여대 명예교수)씨 등 후손들이 기억하는 시문학과의 면면을 수록했다는 데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학술총서 시리즈 중 첫 번째로 발간된 이번 책에는 개관 기념 학술심포지엄에서 발표한 오세영 서울대 명

예교수의 ‘왜 시문학인가?’ 등의 논문과 지난 2012년에 진행한 ‘이달의 시문학과 동인’ 프로그램을 통해 얻은

결과물이 수록되어 있다.

시문학가기념관은 총서 시리즈 중 첫 번째 책을 발행 계기로 매년 학술세미나와 심포지엄을 열어 발표된 연구물을 바탕으로 책을 발간할 예정이다.

시문학과는 1930년대 창간한 ‘시문학’을 통해 활동했던 시인들을 지칭한다. 김윤식, 박용철, 정지용, 이하윤, 정인보, 변영로, 김현구, 신석정, 허보 등이 이에 해당한다.

/박정현기자 kskypark@kwangju.co.kr

그림책 속 세계여행 떠나볼까~

아시아박음공동체, 16일까지 무등갤러리

예비사회적기업인 아시아박음공동체가 10일~16일 광주시 동구 무등갤러리에서 ‘그림책 속에 숨겨진 다양한 세계나라이야기’라는 주제로 동화 삽화 전시회를 갖는다.

이번에 선보이는 작품들은 아시아박음공동체가 지난 2010년부터 출간한 중국, 베트남, 일본, 스리랑카, 몽골 등 ‘다문화 전래 동화 시리즈’에 들어간 원화 24점이다.

동화작가인 서림초교 이미경 교사

의 베트남동화삽화 ‘마술석궁’, 화가 정현주씨의 몽골동화삽화 ‘에르히메르겐’ 등을 비롯한 아시아 각국의 전래동화와 관련된 그림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전시기간 중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이주여성들이 직접 출신국가의 언어로 동화책을 읽어주는 동화구연과 원화에 자신만의 색깔로 그림을 그리는 행사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문의 062-236-2520.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since 1982

창업 30주년 K 국제보청기

국제 보청기의 정성은 고객 만족입니다

☎ 디지털 보청기(미국·독일·덴마크)를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받으세요.

謹賀新年

www.kjhr.com

국제보청기 독일 한사톤(HANSATON)정품만 취급합니다.

본 점 062)227-9940	총장점 062)227-9970
목포점 061)262-9200	장흥점 062)222-9975
서울점 02)765-9940	순천점 061)752-9940

2013년 새로운 시작!

금수장 호텔 · 아리랑 하우스에서 함께 하십시오

☎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 525-2111 (계림동 흙플러스 건너편)

“경축” 무등산 국립공원 승격

건강한 우리음식 한정식으로 만남의 기쁨을 더 하십시오

평일 주중 점심 특선 오찬정식 15,000원

30년 전통의 한정식 25,000원 / 33,000원 / 40,000원 / 50,000원

고객님의 여행과 휴식을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하여 드릴 것입니다